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5, pp.47-80
<https://doi.org/10.29212/mh.2022..125.4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지원 |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부교수

- 목 차
1. 서 론
 2. 『육군전사』와 『공군발전약사』, 그리고 『공군사』
 3.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 역사의 쟁점들
 4.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에 대한 오해와 이해
 5. 결 론

초 록 공군의 모체(母體)였던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실(史實)이 정립되지 못했다. 6·25전쟁 중 주요 자료들이 소실되어 각 군(軍)에서 불충분한 자료에 대한 회고와 추정을 바탕으로 그 역사를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씩 상이한 역사 서술이 공존하고 있다. 육군은 1952년에 『육군전사』에서, 공군은 1954년에 『공군발전약사』와 1962년에 『공군사』

제1집에서 그 역사를 서술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역사 서술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문서 자료와 비교하여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그 부대는 우선 개칭을 한 후 새로운 이름에 부합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성장하였다. 다만 공군을 창군할 때까지 항공기는 단 한 대도 확충하지 못했고, 전술적 역량도 확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공군은 능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목표에 따라 창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는 그러한 과정의 출발점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주제어 : 국방경비대, 조선경비대, 항공력, 한국 공군, 항공 부대, 창군, 역사 서술

(원고투고일 : 2021. 10. 3, 심사수정일 : 2022. 11. 6, 게재확정일 : 2022. 11. 25.)

1. 서 론

한국 공군은 육군이나 해군과 달리 창군되는 과정에서 ‘독립’의 단계를 거쳤다. 1949년 10월 1일부로 대통령령에 따라 국방부분부에서 독립한 국방부 항공국과 육군으로부터 독립한 육군 항공사령부가 결합하여 한국 공군이 창군된 것이다.¹⁾ 이승만 정부가 공군을 창군한 국제정치적 배경과 그 창군의 과정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었으나 공군의 모체(母體)였던 조선경비대 예하의 항공 부대는 그동안 학술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²⁾ 공군에서 발간한 역사서에서는 창군 이전의 역사로, 육군에서 발간한 역사서에서는 소수 병과의 역사로 치부되었다. 그 결과 광복 이후 조선경비대가 육군으로 전환되었던 1948년 12월까지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는 그 기초적인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³⁾ 조선경비대 최초의 항공 부대

1) 한국 공군은 1949년 10월 1일에 대통령령 제254호에 의해 공군본부 직제가 창설되면서 창군되었다. 대통령령 제254호, 「공군본부직제(空軍本部職制)」(1949년 10월 1일).

2) 이명환, 「공군의 창설과 발전」, 『軍史』, 第68號 (2008); 김경록, 「6·25 전쟁 이전 공군의 창군과 전력증강」, 『軍史』 第73號 (2009); 강창부, 김기동, 이지원, 「공군의 창설에서 최용덕의 역할」, 『민족문화논총』 제64권 (2016); 이지원, 「이승만 정부의 항공력 건설 노력(1948~1950)」, 『軍史』 第121號 (2021). 한편, 이 기간의 전반적인 항공력 건설 노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김기동, 「1945~1948년 항공력 건설 노력과 그 의의」, 『軍史』, 第99號 (2016).

3) 법률 제9호, 「국군조직법(國軍組織法)」, (1948년 11월 30일). 1946년 1월 15일에 창설된 남조선국방경비대(Korean National Constabulary)는 1947년 12월 17일부로 ‘조선경비대’로 개칭하였고, 항공 부대는 그렇게 개칭한 이후에 창설되었다. 김승기, 최정준,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 pp. 60-64.

가 언제 창설되었으며, 최초의 지휘관이 누구였고, 그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부대의 명칭과 성격이 어떻게 변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역사서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가 정립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료의 부족에 기인한다.⁴⁾ 각 군(軍)이 창군된 직후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당시 문서들이 대부분 소실되었고, 각종 역사 일지와 일부 명령 정도만 남아있어 창군 시기의 사건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기가 곤란하다.⁵⁾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와 공군도 마찬가지로이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서울이 위협받자 서울 공군본부의 인사담당자는 모든 인사 관계 서류를 소각하고 장교와 사병(士兵)의 군번 일람표만을 지참하고 퇴각하였다. 그리고 서울을 수복한 후 서울 이남 지역에 남아있던 특명 자료를 모아 특명철을 다시 만들었다.⁶⁾ 현재는 이때 만들어진 특명철과 『공군 장교자력기록부』, 『장교임관순대장(공군)』, 『공군일지』 등이 남아 있다.⁷⁾ 하지만 이 자료들도 공군이 창군된 이후 재작성된 것이어서, 그 이전에 창설되었던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와 관련된 사실(史實)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대단히 드물다.

각 군에서 역사서를 편찬할 때,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회고에 의존하여 서술하다 보니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에 대한 서로 다른 역사 서술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를 검토해 보면, 그

4) 이 논문에서는 ‘항공부대’가 부대 명칭에 고유명사로 사용된 경우와 구분하기 위하여, ‘항공 분야를 전담하는 부대’라는 의미의 보통명사를 ‘항공 부대’로 표기한다.

5) 노영기, 「군 자료를 통해 본 한국군의 창설과 변화: 국방경비대·육군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제26권, 제2호 (2022), pp. 381-386.

6) 당시 인사담당자 변찬홍의 회고, 공군역사기록단, 『한국전쟁 면담록 (1982)』, “창군 당시 인사제도”, 변찬홍이 말하는 “군번 일람표”는 『임관순대장(공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사병(士兵)은 오늘날 계급 제도를 기준으로 부사관과 병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창군기 ‘항공병’은 사병의 개념이었다.

7) 공군본부, 『空軍日誌 (1948-1953)』; 국방부, 『장교임관순대장(공군)』; 공군본부, 『공군 장교자력기록부』.

출발점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 1952년에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육이오 육군전사(六. 二五 陸軍戰史) 제1권』 (이하 『육군전사』)과 1954년에 공군본부에서 발간한 『공군발전약사(空軍發展略史) 제1권』 (이하 『공군발전약사』)이다. 이 두 책에서 제시하는 조선 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에 관한 서술은 서로 상이하다. 그리고 1962년에 공군본부에서 정기적인 부대사로서 최초 발간한 『공군사(空軍史) 제1집(1949.10.1.~1953. 7. 27.)』 (이하 『공군사』)에서는 『육군전사』와 『공군발전약사』의 역사 서술이 혼합된 새로운 역사 서술이 등장한다.⁸⁾ 그 이후에 출판된 역사서들은 모두 이 세 권의 해석을 선택적으로 따르고 있을 뿐, 그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육군전사』와 『공군발전약사』, 그리고 『공군사』에서 전개되는 역사 서술을 문서 자료를 토대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는 군(軍)의 공식 문서 자료이다. 여기에는 우선 통위부와 육군본부에서 발령한 일반명령의 모음집인 『통위부특명첩(統衛部特命綴)』과 『육일명첩(陸一命綴)』이 있다. 앞서 언급한 『장교임관순대장(공군)』, 『공군장교자력기록부』, 『공군일지』 등도 함께 검토한다. 그리고 미국 공군에서 발간한 정보보고서를 교차 검증한다. 이 정보보고서들은 발간 시기가 당시와 가장 가깝고, 기존의 역사서에서 검토된 적이 없는 자료여서 중요하다.⁹⁾ 이 자료들을 토대로 기존 역사서들을 분석하였고, 그렇게 해서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회고

8) 공군본부정훈감실, 『空軍史 第1輯(1949.10.1.~1953. 7. 27.)』 (공군본부, 1962); 육군본부, 『六. 二五 陸軍戰史 第1券』 (육군본부, 1952); 공군본부, 『空軍發展略史 第1券』 (공군본부, 1954).

9) 국방부, 『統衛部特命綴(1947. 5. 5.~1949. 9. 24.)』; 육군 군사연구실, 『육일명첩』 (1949); 『공군장교자력기록부』;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South Korean Army Air Forces" (1949. 8. 29);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Korean Air Force(Personnel Strength)" (1951. 7. 31.).

록 등을 통해 보완하였다.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육군전사』와 『공군발전약사』, 그리고 『공군사』에서 나타나는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에 대한 역사 서술을 비교하여 쟁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도출된 쟁점들을 군(軍)의 문서 자료를 기반으로 검증하고, 제4장에서는 역사 서술의 오류가 누적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대안적 역사서술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논지를 요약하여 정리한 후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가 갖는 의의를 평가한다.

2. 『육군전사』와 『공군발전약사』, 그리고 『공군사』

‘조선경비대’는 육군의 모체(母體)이다. 1945년 11월 13일에 미군정이 법령 제28호를 공포하여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국방사령관으로 미 제24군단 쉬크(Lawrence E. Schick) 준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1946년 1월 15일에 국방사령부 군무국 관할하에 ‘남조선국방경비대(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다. 국방경비대는 병력과 조직을 확대한 후 1947년 12월 17일부로 ‘조선경비대’로 개칭하였고, 1948년 9월 5일부로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육군’은 11월 30일에 제정된 『국군조직법』에 의해 법제화되었다.¹⁰⁾

조선경비대의 성장은 주로 보병 부대의 증강에 따른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 부대도 창설되고 성장했다. 조선경비대의 항공 부대는 조선경비대가 육군으로 전환됨에 따라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되었다. 그 시점까지 조선경비대 예하

10) 노영기(2022), pp. 387-400; 김승기, 최정준(2020), pp. 60-68.

의 항공 부대가 창설되고 변천하는 과정에 대해 1950년대에 발간된 역사서에서는 다소 상이한 두 가지 역사 서술이 병존한다. 우선 1952년에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육군전사』에 따르면 1948년 4월 1일에 ‘육군항공부대’가 “발족”하고 김정렬(金貞烈)을 비롯한 7명의 간부가 창설 요원으로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대하였다. 5월 5일에는 경기도 수색(水色)의 조선경비대 제1여단 사령부 내에 ‘육군항공부대’가 통위부 예하에 정식으로 “창설”되었으며, 백인엽(白仁燁)이 초대 부대장으로 보임되었다. 이 부대는 7월 27일에 ‘육군항공기지부대’로 개칭하고 부대 병력을 강화하면서 김포군(金浦郡) 양서면(楊西面) 송정리(松亭里)로 이동하였고, 9월 13일에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하면서 예하에 비행부대와 기지부대를 창설하였다.¹¹⁾

한편, 1954년에 공군본부에서 발간한 『공군발전약사』에 따르면, 1948년 4월 1일은 최용덕(崔用德)을 비롯한 7명의 ‘창설간부요원’이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교한 날짜였고, 5월 5일은 ‘항공기지부대’가 통위부 예하에 “편성”된 날짜였다. 이 부대는 6월 23일에 조선경비대 예하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7월 9일에는 최용덕이 부대장으로 보직되었다. 그리고 7월 27일에 ‘(조선경비대) 항공기지부대’는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로 개칭하면서 수색에서 경기도 김포군(金浦郡) 양서면(楊西面) 송정리(松亭里)로 이동하였다. 9월 13일에는 미군으로부터 L-4 연락기 10대를 인수하고 예하에 ‘비행부대’와 ‘항공기지부대’를 설치했고, 『국군조직법』 제정에 따라 12월 15일부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는 ‘육군항공군사령부’로 개칭하였다.¹²⁾ 대체로 『공군발전약사』

11) 육군본부(1952). 이 역사 서술은 1954년에 발간된 『國防部史』에서도 발견된다.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國防史1(1945.8.-1950.6.)』, pp. 29-30.

12) 공군본부(1954).

의 설명은 『육군전사』보다 더 구체적이다.¹³⁾

한편, 『공군사』에 따르면 1948년 4월 1일에 김정렬을 비롯한 7명의 간부가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대하고 ‘항공부대’가 통위부 예하에 “창설”되었다. 이 부대는 6월 23일에 조선경비대 예하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7월 9일에 최용덕이 부대장으로 보임되었다. 7월 27일에 ‘(조선경비대) 항공부대’는 ‘(조선경비대) 항공기지부대’로 개칭했다가 9월 13일에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로 다시 개칭했다. 그리고 『국군조직법』이 제정됨에 따라 12월 1일부로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되었다.¹⁴⁾ 이 책은 대체로 『육군전사』의 틀을 따르면서도 초대 지휘관이나 육군항공사령부로의 개칭 시기 등은 『공군발전약사』의 내용을 따르는 등 앞서 발간된 두 책의 역사 서술을 혼합하고 있다. 2010년에 발간된 이 책의 개정판에서도 그 역사 서술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¹⁵⁾

13) 이와 관련하여 『공군일지』는 몇몇 사건들에 대해서는 『육군전사』를 인용하면서도 대체로는 『공군발전약사』의 역사 서술을 뒷받침한다. 5월 5일에 ‘항공기지부대’가 편성되었으며, 이 부대의 초대부대장이 백인엽 소령이었다는 등의 내용은 『육군전사』를 인용하고 있지만, 7월 27일에 ‘항공기지사령부’로 개칭한 후 김포로 이동했고, 9월 13일에 미군으로부터 L-4 연락기 10대를 도입하여 예하에 ‘비행부대’와 ‘항공기지부대’ 등을 신설했다는 내용은 『공군발전약사』와 유사하다.

14) 공군본부정훈감실(1962), pp. 63, 196-197.

15) 공군역사기록단, 『空軍史 第1輯 改訂版(공군 창군과 6·25전쟁)』(계룡: 공군본부, 2010), pp. 25-29. 한편 이 책은 뒷부분에서는 『육군전사』와 거의 동일한 역사 서술이 등장하는 등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 *Ibid.*, pp. 196-197.

<표 1> 『육군전사』, 『공군발전약사』, 『공군사』 비교

대상 일자	『육군전사』 (1952)	『공군발전약사』 (1954)	『공군사』 (1962)
1948. 4. 1	“ 육군항공부대(陸軍航空部隊) 라는 명칭으로 발족(發足)하게 되었으니 창립요원으로 김정렬, 최용덕... 7명이 한 국공군창설의 증착을”(p.81.)	“최용덕... 김정렬... 등 7명이... 조선경비대 항공부대(航空部隊) 창설 간부요원(創設幹部要員)으로”(p.2.)	“김정렬, 최용덕... 등 7명이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교하고... 항공부대(航空部隊) 간부로서 활약.” (p.63.)
1948. 5. 5.	“제1 여단사령부 내에 항공부대(航空部隊) 를 창설하여... 초대 부대장에는 육군소령 백인엽이 보임(補任)” (p.82.)	“제1여단사령부 내에서 항공기지부대(航空基地部隊) 를 편성(編成)하여”(p.2.)	
1948. 7. 9.	“육군항공대위 최용덕이 제2대 부대장으로 보임 ”(p.82.)	“부대장에 중위 최용덕이 보직(補職) 되어 이로부터 항공기지부대(航空基地部隊) 는 항공계(航空界) 출신자에 의하여 움직이게.” (p.3.)	“ ‘항공부대(航空部隊)’ 라는 명칭하에 발족(發足)을 본동(同) 부대는 동년 7월 9일부로 부대장에 대위 최용덕이 보직(補職) 되었고”(p.63.)
1948. 7. 27.	“ 육군항공부대(陸軍航空部隊) 는 육군항공기지부대(陸軍航空基地部隊) 로 개칭(改稱)하고...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로 이동”(p.82.)	“ 항공기지부대(航空基地部隊) 는 항공기지사령부(航空基地司令部) 로 개칭(改稱)되고...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로 이동.”(p.3.)	“ 항공부대(航空部隊) 를 ‘항공기지부대(航空基地部隊)’ 로 개칭(改稱)하는 동시에...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로 이동”(p.63.)
1948. 9. 13.	“ 항공기지부대(航空基地部隊) 는 새로이 육군항공사령부(陸軍航空司令部) 로 개편(改編)되어”(p.82.)	“최초로 연습기(L-4) 10대를 이양받게 되어 항공기지사령부(航空基地司令部) 예하에 비행부대(飛行部隊)를 여의도에서, 또 항공기지부대(航空基地部隊) 를 김포에서 각각 창설(創設)”(p.3.)	“ 항공기지부대(航空基地部隊) 를 항공기지사령부(航空基地司令部) 로 개칭(改稱)하고... 항공기지사령부(航空基地司令部) 예속(隸屬)하에 ‘비행부대(飛行部隊)’와 ‘ 항공기지부대(航空基地部隊) ’를 김포에서 각각 창설(創設)하고”(p.63.)

대상 일자	『육군전사』 (1952)	『공군발전약사』 (1954)	『공군사』 (1962)
1948. 12. 1		“국군조직법(國軍組織法) 제1장 제2조의 규정(規定)에 의거 동년 12월 15일에 통위부(統備部)가 국방부(國防部)로, 조선경비대(朝鮮警備隊)가 대한민국 육군으로 정식개편(改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航空基地司令部) 는 동일부로 대한민국 육군항공군사령부(陸軍航空軍司令部) 로 정식개편(改編)하게 된 것”(p.4.)	“국군조직법(國軍組織法)에 의거하여 조선경비대(朝鮮警備隊)가 대한민국 육군으로 정식 개칭(改稱)되면서, 이에 따라 조선경비대 항공사령부(航空司令部) 를 동일부로 대한민국 육군항공사령부(陸軍航空司令部) 로 정식 개편(改編)하게 되었다.”(p.64.)

이후에 발간된 역사서들에는 이 세 가지 역사 서술이 혼재되어 있다. 가령, 1984년에서 발간된 『국방사(國防史)1』에서는 『공군발전약사』의 역사 서술이 차용되었다.¹⁶⁾ 그리고 2002년에 발간된 『건군사(建軍史)』에서는 대체로 『공군사』의 역사 서술을 따르되, ‘(통위부) 항공부대’는 6월 23일에 조선경비대로 예속 변경되면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로 개칭되었고, 7월 27일에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로 개칭되었다고 서술한다.¹⁷⁾ 이후에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발간된 역사서들은 대체로 『건군사』의 틀을 따르고 있다.¹⁸⁾

1948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이 역사 서술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첫째, 최초의 항공 부

16) 다만 이 책에서는 ‘항공기지사령부’로 개칭한 날짜가 7월 17일로 기록되어 있다.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1984), p. 202.

17) 백기인, 『건군사』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222-228.

18) 가령, 백기인, 심현용,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p. 208-209.

대는 언제 창설되었고, 그 명칭은 무엇이었는가? 『육군전사』에서는 1948년 4월 1일에 ‘육군항공부대’라는 명칭으로 발족되고 5월 5일에 통위부 예하로 “편성”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공군발전약사』에서는 이날 “편성”된 것은 ‘(통위부) 항공기지부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공군사』에서는 4월 1일에 ‘(통위부) 항공부대’가 “창설”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⁹⁾

둘째, 최초 항공 부대의 초대 지휘관을 누구라고 보아야 하는가? 『육군전사』에서는 백인엽이 5월 5일에 초대 부대장으로 보직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공군발전약사』와 『공군사』에서는 백인엽에 대한 설명은 누락하고 7월 9일에 최용덕(崔用德)이 부대장으로 보직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군일지』에서는 『육군전사』를 인용하여 백인엽을 초대 부대장으로, 최용덕을 제2대 부대장으로 지칭하고 있다.

셋째,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와 ‘육군항공사령부’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공군발전약사』에서는 7월 27일에 김포로 이전하면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고 설명하지만 『공군사』에서는 예하에 ‘항공부대’와 ‘기지부대’를 설치하면서 9월 13일에 처음으로 그 명칭이 사용되었다고 기술한다. 그리고 ‘육군항공사령부’라는 명칭은 『육군전사』에서는 9월 13일부터, 『공군발전약사』에서는 12월 15일부터, 『공군일지』와 『공군사』에서는 12월 1일부터 사용하였다고 서술한다.

19) 공군본부(1954), pp. 2-3; 육군본부(1952), pp. 81-82; 공군본부정훈감실(1962), pp. 62-63.

3.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 역사의 쟁점들

가. 최초 항공 부대의 창설일과 명칭

1948년 4월 1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선 ‘육군항공부대’가 “발족”하거나 “창설”되었다는 명령은 찾기 어렵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그날 “조선경비대 항공부대”를 “창설”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국방본부역사일지』가 거의 유일하다.²⁰⁾ 다만 7명의 ‘창설간부요원’이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은 거의 모든 자료에서 확인된다.²¹⁾

5월 5일에 ‘항공부대’ 혹은 ‘항공기지부대’가 통위부 예하에 창설되었다는 설명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육군전사』와 『공군사』, 그리고 『국방부사』에서는 모두 이날 (통위부) 항공부대가 창설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공군발전약사』와 『국방사』 그리고 『공군일지』와 『공군전사자료』에서는 같은 날 (통위부) 항공기지부대가 창설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²²⁾ 전쟁 이후 재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공군장교자력기록부』에서도 ‘항공기지부대’라는 표현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지만 ‘항공부대’라는 표현은 찾을 수 없다.²³⁾

20) 국방부, 『國防本部歷史日誌』 (1948-1953).

21) 『空軍日誌』; 공군본부, 『空軍前史資料(檀紀 4281-4282)』 (1956. 5. 28.).

22) 『空軍日誌』; 『國防本歷史日誌』; 『空軍前史資料』;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1984), p. 202; 공군본부정훈감실(1962), p. 196; 공군본부(1954); 육군본부(1952), p. 81.

23) 가령 자력기록부에 이근석은 1948년 5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육군항공기지부대’에 근무한 것으로, 장성환은 같은 해 6월 15일에 ‘육군항공기지부대’에 입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의 군 문서에서 찾을 수 있는 명칭은 1948년 5월 14일자 『통위부특명첩』에 표기된 ‘통위부 비행장 부대’이다.²⁴⁾ 또한 1949년 8월 29일에 미 극동공군 정보장교 니콜스(Donald Nichols)가 작성한 정보보고서에서는 이 부대에 대해 “Korean Air Base Detachment”라는 명칭을 사용했다.²⁵⁾ 이 영문 명칭과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당시 통위부에서는 이 부대에 대해 ‘비행장부대’, 혹은 ‘항공기지부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²⁶⁾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 5월 5일은 미 군사고문 앨러먼(William R. Allerman) 중위가 배치되면서 ‘Korean Air Base Detachment’가 “구성(formed)”된 날이었다. 그 이후로 이 부대는 총 105명(장교 19명과 항공병 86명)으로 구성된 부대편성표(T/O)를 갖추고 병력을 충원한 후 7월에 할당받은 지역(김포비행장 외곽)으로 이동하였다.²⁷⁾

이렇게 보면 5월 5일에 편성된 ‘(통위부) 항공기지부대’는 정규 부대라기보다는 미군사고문단과 함께 한국군 항공 부대의 창설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조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항공 부대가 언제 정식으로 창설되었는지를 판단하려면 실제로 그 부대가 창설되었던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한 최

24) 5월 14일자 통위부특명첩에는 백인엽이 ‘통위부 비행장부대’로 전속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統衛部特命綴』. 이와 관련하여 일본제국 육군항공대에서는 ‘비행장대대(飛行場大隊)’라는 부대 명칭이 사용된 적이 있었다. 木俣滋郎, 『陸軍航空隊全史：その誕生から終焉まで』, (東京: 潮書房光人社, 2013), p. 51.

25)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South Korean Army Air Forces”(1949. 9. 12.) 이 자료는 작성 시기로 볼 때 현재로서는 가장 신뢰성이 높다.

26) 이 단어는 ‘항공기지분견대’로 직역할 수 있다.

27)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South Korean Army Air Forces”(1949. 9. 12.). 이 자료에서는 ‘항공기지부대’가 수색에서 김포로 이동한 날짜를 7월 16일로 기록하고 있으나 다른 대부분의 역사서에서는 7월 27일로 기록하고 있다.

초의 명령은 최용덕을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 통위부 특명이다.²⁸⁾ 『육군전사』와 『공군발전약사』, 그리고 『공군사』에서는 모두 최용덕이 항공 부대의 부대장으로 보임한 날짜를 7월 9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 특명에 따르면 실제 임명일은 7월 15일이었다. 즉, 조선경비대 항공기지부대는 7월 12일에 항공병 제1기 78명을 충원하고 7월 15일에 지휘관을 임명한 후, 7월 27일에 김포로 이동했다.²⁹⁾ 항공병 제1기였던 김병탁의 회고에 따르면, 수색에 있었던 ‘(조선경비대) 항공기지부대’에 집결한 날짜가 7월 12일 경이었고, 전 병력이 김포로 이동한 후 입대식을 하였다.³⁰⁾ 요컨대 이 부대는 부대 창설에 필수적인 조치를 완료한 후 7월 27일에 비로소 정규 부대로서 정식 창설된 것으로 보인다.

나. 최초 항공 부대의 초대 지휘관

다음으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부대’ 혹은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의 초대 지휘관은 누구였는가? 『육군전사』와 『공군일지』에서는 백인엽을, 『공군발전약사』에서는 최용덕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당시에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7월 1일자 『평화일보』에서 조선경비대가 “항공사령관 백인엽 소령을 중심으로” 공군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가자, 이틀 후 『대한일보』에서는 “공군건설(空軍建設)의 테마 시정(是正)”이라는

28) 『統衛部特命綴』.

29) 공군본부(1954); 『空軍日誌』.

30) 『한국전쟁 면담록』, “항공병 모집 및 계급 부여”, 다만 그의 회고에 따르면, ‘항공기지부대’의 병력이 김포로 이동하여 입대 선서를 한 날짜는 7월 22일이다. 『공군장교자력기록부』에 기록된 이들의 입대일도 대부분 7월 22일이다. 이를 통해 판단할 때 7월 27일은 이동을 완료하고 일종의 부대 창설식을 거행했던 날짜로 추정된다.

제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경비대(警備隊)에 공군설치(空軍設置)에는 이미 주야불구(晝夜不拘)하고 □동중(□動中)인 최용덕장군(崔用德將軍) 이하(以下) 항공최고지도층(航空最高指導層) 7명(七名)이 있어 거이 이를 완성(完成)시키고 있는데 과거(過去)에 특간이(特幹二) 출신밖에 안되는 백인엽(白仁燁) 소령이 우리나라 공군사령관(空軍司令官)이란 도저히 상상(想像)치도 못할 오보(誤報)라고 믿는다. 만약 이러한 것이 사실(事實)이라면 고도국방국가건설(高度國防國家建設)의 선(先)봉이 될 우리나라 공군(空軍)을 생각(生覺)할제 우리 공군출신(空軍出身) 일동(一同)은 비(悲)분 굴(偏)욕감(感)에 나머지 결사반대투쟁(決死反對鬪爭)하 우리 이상적(理想的) 공군설치(空軍設置)에 만전(萬全)을 기(期)할 것이다. 대한민국삼년7월2일(大韓民國三年七月二日) 대한공군출신동지회 일동(大韓空軍出身同志會一同)”³¹⁾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48년 5월 5일은 항공 부대를 창설하기 위해 통위부 항공기지부대가 “구성(formed)”된 날짜이다.³²⁾ 그리고 『통위부특명첩』에서 조선 경비대 제1연대 제2대대 백인엽 소령이 이곳에 전속 명령을 받은 날짜는 5월 14일이다. 이 특명은 단순 전속 명령으로서 지휘관 등 보직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날 최용덕을 비롯한 7명의 ‘창설간부요원’들이 항공소위로 임관하여 7명의 사병과 함께 ‘항공총감부’로 배속되었다. ‘창설간부요

31) 『평화일보』 (1948. 7. 1.), “警備隊에 空軍設置: 白航空司令官中心으로 訓練實施”; 『대한일보』 (1948. 7. 3.), “空軍建設의 테마是正”.

32)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South Korean Army Air Forces” (1949. 9. 12.).

원'의 일원이었던 김정렬(金貞烈)의 회고에 따르면, 이들은 약 3주 후 통위부 항공기지부대로 합류했다.³³⁾ 따라서 1948년 5월 14일은 백인엽과 최용덕을 비롯한 7명의 항공소위들이 인사 명령상 통위부 예하의 항공 관련 부서에 함께 배속된 날이었다. 계급은 백인엽이 가장 높았지만, 그가 초대 부대장이라는 명령 근거는 현재로서는 찾을 수 없다. 요컨대 그는 한국군 대표로서 부대편성표가 확정되기 전 앨러먼과 함께 정규 항공 부대의 창설을 준비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으로 지휘관계가 드러나는 명령은 6월 26일부로 최용덕을 '조선경비대 항공처장 겸 통위부 항공총감'으로, 7월 15일부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관'으로 겸직 임명한다는 내용의 통위부 특명이다.³⁴⁾ 이 중 6월 26일의 명령은 항공기지부대의 예속 관계 변경에 기인했다. 통위부 수석고문관으로 부임한 로버츠(William L. Roberts) 장군은 한국군의 작전통제 계통이 조선 경비대와 통위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하자 정책 수립 기능은 통위부에, 작전통제 기능은 조선경비대에 집중시키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6월 25일부로 통위부는 작전통제 기능이 중지되었다.³⁵⁾ 항공기지부대 역시 6월 23일부로 통위부 예하에서 조선경비대 예하로 예속 변경되었다.³⁶⁾ 이 과정에서 최용덕

33) 『統衛部特命綴』, 1948년 5월 14일자; 『空軍前史資料(檀紀 4281-4282)』 (1956). 김정렬은 자신들이 이 부대에 합류하기 전 약 3주일 동안 백인엽이 “항공사령관 노릇을” 했으며, 약 1개월 후 부대편성표(T/O&E)가 확정된 후 최용덕이 “항공 부대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한국전쟁 면담록』, 김정렬, “여수·순천 사건” 다만 그는 ‘창설간부요원’ 7명의 임관일이 5월 14일이 아니라 6월 16일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서에서 ‘창설간부요원’ 7명의 임관일은 5월 14일로 기록되어 있어 6월 16일은 임관일보다는 보임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34) 『統衛部特命綴』.

35) Robert K. Sawyer, 이상호 등 역, 『주한미군사고문단사』 (서울: 선인, 2018), p. 49.

36) 『空軍日誌』, 1948년 6월 23일 자.

은 조선경비대와 통위부 양쪽의 항공 관련 부서를 총괄하게 되었고, 7월 15일에는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관으로 겸직 임명되었다. 같은 날 백인엽은 제4여단으로 다시 전출되었다. 처음으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부대의 지휘관계가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이날의 명령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 최초 항공 부대의 개칭사(改稱史)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와 ‘육군항공사령부’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기존의 역사서를 살펴보면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공군발전약사』에서는 ‘(조선경비대) 항공기지부대’가 7월 27일에 김포로 이전하면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은 창설 준비 조직이었던 ‘(조선경비대) 항공기지부대’로부터 정식 부대로 전환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한편, 『공군사』에서는 9월 13일에 처음으로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그 명칭을 사용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항공부대’와 ‘항공기지부대’를 예하에 창설하게 되면서 ‘항공기지부대’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개칭하였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니콜스도 5월 5일부터 ‘Korean Air Base Detachment’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9월에 개칭했다고 기술하고 있다.³⁷⁾ 그러나 애초에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항공기지’ 부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공기 도입을 계기로 개칭을 하면서 ‘항공사령부’가 아니라 굳이 ‘항공기지사령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³⁸⁾ 또한 8월의 통위부 편성표에서

37)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South Korean Army Air Forces” (1949. 9. 12.) 그러나 그 영문 명칭은 ‘항공기지부대’로도 ‘항공기지사령부’로도 번역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선경비대총사령부 예하에 ‘항공기지사령부’가 편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7월 27일부터 그 명칭을 사용했다는 설명이 더 타당하다.³⁹⁾

다음으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는 다시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육군전사』에서는 항공기를 최초로 도입했던 9월 13일부터, 『공군일지』와 『공군사』에서는 『국군조직법』이 공포된 직후인 12월 1일부터 사용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공군발전약사』에서는 『국군조직법』의 공포일을 명시한 후 12월 15일에 ‘정식 개칭’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⁴⁰⁾ 『건군사』에서 이 문제를 검토한 백기인은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가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된 날로서는 9월 13일보다 12월 1일이 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⁴¹⁾

다른 문서들을 검토해 보면, 우선 니콜스는 정보보고서에서 ‘Korean Air Base Detachment’가 9월에 규모를 확대하면서 ‘the Army Air Force’로 개칭되었다고 기술했고, 11월에 한국이 미국에 보낸 군사원조 요청 문서들에서도 항공기 원조 요구 목록을 작성한 부대의 명칭은 ‘Korean Air Command’나

38) ‘the Army Air Base Detachment’라는 명칭은 ‘the Army Air Detachment’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 표현은 1949년 3월 22일에 승인된 미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8/2 보고서에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는 한국에 원조할 항공력은 육군에 속한 ‘항공분견대’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락기 12대로 원조의 범위를 한정했다. 따라서 ‘the Army Air Base Detachment’는 ‘the Army Air Detachment’가 창설되기 전 아직 항공기가 도입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잠정적 명칭으로 추정된다.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1949. 1943. 1922.),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9, Volume VII, Part 2. The Far East and Australi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pp. 969–978.

39) 신영진, 「미 군정기의 군비」, 『軍史』 第16號, 1 (1988), p. 237.

40) 공군본부(1954), p. 4; 육군본부(1952), p. 84; 공군본부정훈감실(1962), p. 64.

41) 백기인(2002), p. 234, 각주 377번.

‘Headquarters of Korean Air Force’ 등으로 기록되어 있었다.⁴²⁾ 이러한 기록은 9월 13일부터 ‘육군항공사령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육군전사』의 서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9월에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를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했다는 설명은 ‘조선경비대’가 9월 5일부로 ‘육군’으로 개칭되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⁴³⁾, 12월 15일부로 개칭했다는 설명은 『국군조직법』 제정에 따라 ‘조선경비대’가 제도상 ‘육군’으로 정식 전환되었던 날짜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⁴⁴⁾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가장 명확한 문서 근거는 「육본 일반명령 제10호이다. 이 명령에는 1948년 12월 10일부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의 명칭을 육군항공사령부로 변경함”으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⁴⁵⁾ 9월 13일이나 12월 15일은 오히려 연관된 상황을 토대로 개칭일을 추정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1948년 5월 5일에 통위부 예하에 편성된 ‘항공기지부대’는 7월 27일에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라는 이름으로 개칭되며 정식으로 창설되었고, 이 부대는 12월 10일에 조선경비대가 육군으로 전환될 때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되었다는 설명이 가장 적확할 것으로 판단된다.⁴⁶⁾

42)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South Korean Army Air Forces” (1949. 9. 12.); J.C.S. 1483/60 (1949. 2. 1.), “A Proposed Plan to Form An Air Forces of Fighting Strength By Korean Air Command”.

43) 1948년 8월 24일에 대한민국의 통치권과 국방군의 지휘 책임을 인수하는 데 대한 한미 간 행정협정이 체결되어 9월 1일부로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는 각각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으로 잠정 편입되었다가 9월 5일부로 ‘육군’과 ‘해군’으로 개칭되었다. 노영기,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p. 400; 이은봉, 조복현, 『建軍 50年史』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 45; 김승기, 최정준(2020), p. 40;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1948년 8월 24일).

44) 1948년 12월 15일에는 『국군조직법』 제정에 따라 통위부는 국방부로,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전환되었다. 육군본부(1952), p. 73; 김승기, 최정준(2020), p. 68.

45) 「육본 일반명령 제10호」 (1948. 12. 6.), 육군 군사연구실, 『육일명첩』 (1949).

4.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에 대한 오해와 이해

가.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에 대한 역사 서술의 오류사(誤謬史)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군 창군 이전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에 대한 역사 서술의 변화는 발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역사 서술이 최신화되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존의 오류가 해소되기보다는 누적되는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선, 『육군전사』는 전쟁 중이었던 1952년 1월에 육군본부에서 작성하였다. 여기에서는 1948년 4월 1일부터 1949년 10월 1일까지를 “육군항공 부대시기”로, 1949년 10월 1일 이후를 “공군 창설시기”로 구분하여 기술함으로써 육군으로부터 독립하여 공군이 창설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1948년 4월 1일에 ‘육군항공부대’가 발족하여 5월 5일에 창설되었으며, 7월 27일에 ‘육군항공기지부대’로 개칭하였다는 등, ‘조선경비대’가 ‘육군’으로 개칭하기 이전의 항공 부대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육군’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개칭의 과정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서술한 최초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개칭의 이유와 근거를 거의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육군전사』가 발간된 지 2년 후에 출판된 『공군발전약사』에서는 『육군전사』의 오류를 다수 바로잡고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나 보다 공군 중심적 시각이 반영되었다. 우선 육군전사에

46) 『공군발전약사』와 『공군사』에서는 12월 1일부로 ‘항공사령부’에서 ‘육군항공군사령부’로 개칭했다고 설명한다. 여러 문헌에서 이 표현이 등장하지만, 이것이 공식 명칭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공군본부(1954), p. 4; 공군본부정훈감실(1962), p. 197.

서 부정확하게 사용된 ‘육군’이라는 용어 대신 ‘통위부’나 ‘조선경비대’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편제상 개념을 명확하게 수정했다. 그리고 처음 편성되었던 항공 부대의 명칭을 ‘(통위부) 항공기지부대’로 정확하게 수정하고 7월 27일부터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라는 명칭을 사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통위부 항공기지부대에서 백인엽의 역할을 누락하고, 그 부대가 창설되기 이전 ‘한국항공건설협회’와 최용덕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공군 창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드러내려는 경향을 보였다.⁴⁷⁾

그런데 이전의 서술보다 전반적으로 정확성과 구체성이 높아졌던 『공군발전약사』와 달리, 그 책이 출판된 지 8년 후 공군본부가 발간한 『공군사』는 오히려 퇴보하는 경향을 보였다. 5월 5일에 편성된 항공 부대에 대하여 ‘(통위부) 항공기지부대’라는 명확한 명칭을 사용했던 『공군발전약사』와 달리 ‘(통위부) 항공부대’라는 모호한 명칭을 사용했던 『육군전사』의 전례를 따랐고, ‘항공기지부대’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육군전사』와 『공군발전약사』의 설명을 단순 조합하여 7월 27일에 ‘항공부대’가 ‘항공기지부대’로 개칭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책은 공군 창군 이후부터 6·25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공군의 역사에 대해서는 가장 상세하고 중요한 자료지만, 그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실증적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발간된 시기를 통해 추론하면, 1952년 발간된 『육군전사』의 오류를 1954년에 공군본부에서 『공군발전약사』를 발간하면서 상당수 바로잡았으나, 1962년에 공군본부는 다시 『공군사』를 발간하면서 앞선 두 책의 역사 서술을 단순 조합하여 오히려 혼동을 가중했다. 그 이후로 『공군사』 제1집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이러한 오류는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47) 공군본부(1954), pp. 1-3.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에 대하여 현재까지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는 『공군발전약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에 대한 대안적 역사 서술

『공군발전약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자료를 바탕으로 공군 창군 이전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에 대한 기존의 역사 서술을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군정은 조선경비대 최초의 항공 부대 창설을 준비하기 위하여, 1948년 5월 5일에 경기도 수색에 있던 조선경비대 제1여단 사령부 내에 ‘통위부 항공기지부대’를 편성하고 미군사고문 앨러먼 소위를 보임시켰다. 그리고 5월 14일에 조선경비대 제1연대 제2대대 백인엽 소령이 보임되었다. 이날 항공소위로 임관한 최용덕을 비롯한 7명의 ‘창설간부요원’들은 통위부 항공총감부로 배속되었다가 약 3주 후 이 부대에 합류했다. 그리고 6월 23일부로 통위부 항공기지부대는 조선경비대 예하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조선경비대 항공기지부대의 장교단은 105명으로 구성된 부대 편제를 구성하고, 7월 12일에 항공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항공병을 모집하여 총 78명을 충원했다. 마침내 7월 15일에 최용덕이 초대 항공기지사령관으로 임명되고, 7월 27일에 인가된 기지로 병력이 이동을 완료하면서 최초의 정규 항공 부대인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가 정식으로 창설되었다.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는 9월 13일에 미군으로부터 항공기를 인수한 후 예하에 ‘비행부대’와 ‘항공기지부대’를 창설하고 편제병력을 증강했다. 그리고 9월 15일에는 미군으로부터 인도 받은 L-4 연락기 10대로 최초의 공식 비행을 시행했다. 『국군조직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부대는 12월 10일부로 ‘육군항공사

령부'로 개칭하였고, 12월 15일부로 육군의 항공병과를 총괄하는 기능 사령부로 제도화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10월 1일부로 대통령령에 따라 이 부대는 육군으로부터 독립하고, 국방부본부로부터 독립한 항공국과 결합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되었다.

다. 개칭(改稱)의 실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는 약 5개월 만에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되었고, 약 10개월 후 다시 육군으로부터 독립하여 공군의 기간(基幹)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반복된 개칭의 실제는 어떠한가?

『공군발전약사』에 따르면 1948년 7월 27일에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가 창설되었을 때 그 부대의 병력은 장교 8명에 사병 62명에 불과했고, 항공기는 단 1대도 없었다.⁴⁸⁾ “사령부”라는 명칭을 붙이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았다.

그해 9월부터 이 부대는 내실을 갖추기 시작했다. 우선 9월 1일에는 김포비행장 밖에서 안으로 부대를 이전하여 처음으로 '항공기지'사령부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물리적 터전을 갖게 되었다.⁴⁹⁾ 그리고 10월까지 미군으로부터 L-4 연락기와 L-5 연락기를 각 10대씩 인수하여 마침내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항공기를 인수하면서 예하에 항공부대와 기지부대를 창설하여 '사령부'로서의 최소한의 조직 구조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11월 2일에는 미군으로부터 여의도 비행장을 인수하여 처음으로 한국군이

48) 공군본부(1954), p. 3.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7월 12일에 입대한 항공병 78명 중 16명이 약 2주 만에 이탈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교의 경우, 『장교입관순대장(공군)』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7월 27일에 실제로는 '창설간부' 7명과 박원석, 장지량 등 총 9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9) 『空軍日誌』, 1948년 9월 1일 자.

관할하는 비행장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는 비행부대를 여의도 비행장으로 이전하였다.⁵⁰⁾

병력 규모도 확대되었다. 항공병들 가운데 선별하여 장교로 특별임관시키는 방식으로 장교단을 확충했고, 항공병도 항공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398명을 충원했다.⁵¹⁾ 그래서 이 부대가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되었을 때, 장교는 50여 명, 사병은 450여 명 정도를 보유하게 되었다.⁵²⁾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면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는 10월 23일에 최초로 실전에서 항공작전을 수행했다. 여수-순천에서 조선경비대 제14연대에 소속된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진압 작전에 참여했다. 10월 21일에 출동 명령이 내려오자, 비행부대장 김정렬 대위를 비롯한 18명은 10월 23일에 연락기 10여 대로 첫 항공작전을 개시했다. 이들의 임무는 작전 명령 등 각종 문서 전달과 지상군에 대한 정찰 지원, 전단 살포 등이었다.⁵³⁾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는 「육본 일반명령」 제10호에 의해 1948년 12월 10일부로 육군항공사령부로 개편된 이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병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확대했다.

육군항공사령부는 우선 항공경력자에 국한되어 있었던 인력

50) 『空軍日誌』, 1948년 11월 2일 자.

51) 『空軍日誌』, 1948년 9월 18일 자.

52) 『장교임관순대장(공군)』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저자가 추산.

53) 『空軍日誌』, 1948년 10월 21일 자; 『空軍前史資料』; 국방부, 『國防本部歷史日誌』, (1946-1966), 1948년 10월 21일 자. 『공군전사자료』에는 “L-4 10대”와 “L-5 수대”가 출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국방본부역사일지』에는 “9대의 비행기로 출동”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한편, 최초의 항공작전을 수행했던 10월 23일에는 비행부대 소속 항공병 백흠룡(白欽龍)이 L-4 연락기 1대를 타고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항공기지사령부에 대한 대규모 숙군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空軍日誌』, 1948년 10월 23일 자; 이강화, 『대한민국 공군의 이름으로: 6·25전쟁 출격 조종사이자 기록사진가 이강화 장군의 6·25전쟁 이야기』 (서울: 플래넷미디어, 2014), p. 86.

충원 대상을 비경력자로 확대했다.⁵⁴⁾ 이를 위해 1949년 1월 14 일부로 육군항공사관학교를 창설했다.⁵⁵⁾ 이미 육군사관학교에서 장교를 양성하고 있었음에도 항공장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별도의 사관학교를 창설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그리고 비경력자를 대상으로 항공병을 모집하여, 1949년 2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총 1,162명을 충원했다.⁵⁶⁾ 그래서 10월 1일에 창군되었을 때 공군은 장교단 150여 명을 포함하여 총 1,600여 명의 병력을 갖추고, 공군본부 예하에 비행단과 항공기지사령부, 공군사관학교와 보급창, 공군병원, 그리고 여자항공대 등을 갖추게 되었다.⁵⁷⁾

문제는 항공기를 확충하지 못하여 전술적 능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었다는 점이었다. 1949년 3월 8일에 채병덕(蔡秉德) 국방참모총장은 L-5 연락기의 경우 현재 작동 가능한 항공기가 7대에 불과하다며 미군사고문단에 T-6 훈련기 원조를 요청했다.⁵⁸⁾ 또한 5월 3일에 무초(John J. Muccio) 주한미국대

54) 이지원(2021), pp. 13-14.

55) 육군항공사관학교는 3월 15일에 항공병 45명을 '제1차 소집학생'으로 입교시켜 교육을 개시했고, 이와 동시에 중등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제1기 사관후보생을 모집하여 6월 10일에 제1기 사관후보생(사관생도)의 입교식을 거행했다. 공군사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공군사관학교 70년사』, (계룡: 국군인쇄창, 2019), pp. 83-84.

56) 2월 15일에는 항공병 제3기 326명과 여자항공병 제1기 15명을, 6월 13일에는 항공병 제4기 340명을, 8월 9일에는 항공병 제5기 252명을, 8월 19일에는 항공병 제6기 229명을 충원했다. 『空軍日誌』, 1949년 2월 15일, 6월 13일, 8월 9일, 8월 19일 자.

57) 백기인(2002), p. 240; 『空軍日誌』, 1949년 10월 1일 자.

58) 그는 당시 제주도에서는 4대, 광주에서는 2대의 L-5 연락기를 운용하고 있으나 작동 가능한 항공기는 7대에 불과하며, 비행장 대부분에는 격납고도 없어서 날개가 천 재질로 되어 있는 L-5 연락기는 쉽게 손상되므로, 철제 날개를 가진 항공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Memorandum from Chae Byong Dock to Roberts: Recommendation for supply of Air planes", RG 338, Box 6,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1948-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1949-53.

사가 미 국무부 장관에게 보낸 전문에 따르면, 당시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던 항공기는 L-4 연락기와 L-5 연락기 총 16대에 불과했다.⁵⁹⁾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Air Detachment’의 규모라는 항공력원조의 기준을 6·25전쟁 발발 전까지 일관되게 고수하여 항공기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⁶⁰⁾ 그 명칭의 변경과 조직 규모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점에서 한국군의 항공 부대는 여전히 연락기 20여 대를 운용하는 ‘Air Detachment’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항공 부대가 마치 갑각류가 껍질을 벗듯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도 정작 항공기는 그 이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6·25전쟁이 발발할 무렵 공군은 “양병조직 및 지휘참모조직의 과대(過大)함과 용병조직 및 전술제대의 과소(過小)함”이 특장인 기이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⁶¹⁾

5. 결 론

공군의 모체(母體)였던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史實)이 정립되지 못했다. 6·25전쟁으로 인하여 주요 자료들이 소실된 상황에서 육군과 공군은 각각 보유하고

59) 그는 당시 한국군이 이 항공기들을 제주도과 지리산에서 반군에 대한 정찰용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Telegram from the A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9. 5. 3.)”, RG 338, Box 6,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1948-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1949-53.

60) 이지원(2021), p. 12.

61) 이지원, 「6·25전쟁 전반기 미국의 항공기 원조와 한국의 전투조종사 양성정책: 제1전투비행단 창설과정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35권, 제2호 (2020), p. 38.

있는 소수의 자료를 토대로 그 역사를 재구성했고, 그 결과 상이한 역사 서술이 공존하게 되었다. 육군은 1952년에 『육군전사』에서, 공군은 1954년에 『공군발전약사』와 1962년에 『공군사』제1집에서 그 역사를 기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역사서를 비교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문서 자료를 기반으로 조선경비대 예하의 항공 부대에 대한 역사 서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사실에 대한 누락과 오류에도 불구하고 『공군발전약사』의 역사 서술이 가장 사실에 가까웠다. 또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조선경비대의 정규 항공 부대는 1948년 7월 27일에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정식 창설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대는 조선경비대가 육군으로 전환되면서 12월 10일부로 육군 항공사령부로 개칭하였다가 이듬해 10월 1일부로 육군으로부터 독립하고, 국방부본부로부터 독립한 항공국과 결합하여 공군이 되었다.

그 개칭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는 우선 개칭한 후 그 이름에 부합하도록 병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방식의 성장을 반복하여 마침내 공군을 창군하는 데 이르렀다. 그래서 이 부대의 역사에서 새로운 이름이란 새로운 목표와 같았고, 잦은 개칭은 외형적으로는 신속한 성장을 의미했다.

다만 신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전술적 역량은 공군을 창군할 때까지도 계속 담보상태였다. 병력과 조직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항공기는 단 한 대도 확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군은 영국이나 미국의 공군과 달리 능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목표에 따라 창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의 역사적 의미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 부대는 편제와 지휘관계, 그리고 독립된 기지를 갖춘 최초의 정규 항공 부대였으며, 공군을 창군하겠다는 목표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적 기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사 료

가. 미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미 국무부 외교사료집(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FRUS), 미 합동참모본부(U.S. Joint Chiefs of Staff, JCS)

RG 338, Box 6,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1948-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1949-53.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9, Volume VII, Part 2. The Far East and Australi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J.C.S. 1483/60 (1949. 2. 1.).

나. 미 공군 역사연구소(U.S. 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 AFHRA)

Far East Air Force,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South Korean Army Air Forces" (1949. 8. 29.).

Far East Air Force,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South Korean Army Air Forces" (1949. 9. 12.).

Far East Air Force,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Korean Air Force (Personnel Strength)" (1951. 7. 31.).

다. 군 역사 자료

공군본부, 『空軍前史資料(檀紀4281-4282)』(1956. 5. 28.).

_____, 『空軍日誌(1948-1953)』.

공군본부, 『공군장교자력기록부』.

공군역사기록단, 『한국전쟁 면담록』 (1982).

육군 군사연구실, 『육일명철』 (1949).

국방부, 『國防本部歷史日誌』, (1946-1966).

_____, 『장교임관순대장(공군)』.

_____, 『統衛部特命綴』. (1947. 5. 5. - 1949. 9. 24.).

라. 법령 및 협정

법률 제9호, 「國軍組織에 關한 法令」, 1948년 11월 30일
제정.

대통령령 제254호, 「空軍本部職制」, 1949년 10월 1일 제정.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1948년 8월 24일 발령.

마. 신문

『평화일보』 (1948. 7. 1.), “警備隊에 空軍設置: 白航空
司令官中心으로 訓練實施”.

『대한일보』 (1948. 7. 3.), “空軍建設의 테마是正”.

2. 군 역사서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國防史1(1945. 8.~1950. 6.)』,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공군본부, 『空軍發展略史 第1券』, 공군본부, 1954.

공군본부정훈감실, 『空軍史 第1輯(1949.10.1.~1953. 7. 27.)』,
서울: 공군교재창, 1962.

공군사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공군사관학교 70년사』,

- 계룡: 국군인쇄창, 2019.
- 공군역사기록단, 『空軍史 第1輯 改訂版(공군 창군과 6·25전쟁)』,
계룡: 공군본부, 2010.
- 김승기, 최정준,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
- 백기인, 『建軍史』,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2,
<http://uci.or.kr/G500:1310377-02012016864087>.
- 백기인, 심현용,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 육군본부, 『六. 二五 陸軍戰史 第1券』, 육군본부, 1952.
- 이은봉, 조복현, 『建軍50年史』,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3. 기타 논문 및 저서

- Sawyer, Robert K. 이상호, 윤시원, 이동원, 박영실 역, 『주한
미군사고문단사』, 서울: 선인, 2018.
- 木俣滋郎, 『陸軍航空隊全史 : その誕生から終焉まで』, 東京:
潮書房光人社, 2013.
- 강창부, 김기동, 이지원, 「공군의 창설에서 최용덕의 역할」,
『민족문화논총』 64, 2016,
<http://doi.org/10.15186/ikc.2016.12.64.219>.
- 김경록, 「6·25 전쟁 이전 공군의 창군과 전력증강」, 『軍史』
第73號, 2009,
<http://doi.org/10.29212/mh.2009..73.65>.
- 김기동, 「1945~1948년 항공력 건설 노력과 그 의의」, 『軍史』,
第99號, 2016,

<http://doi.org/10.29212/mh.2016..99.189>

김정렬, 『金貞烈 回顧錄』, 서울: 乙酉文化社, 1993,

<http://doi.org/G901:A-0008368112>.

노영기,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 2009.

_____, 「군 자료를 통해 본 한국군의 창설과 변화: 국방경비대·육군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제26권, 제2호, 2022, <http://doi.org/10.36432/CSMKH.48.202207.9>

신영진, 「미 군정기의 군비」, 『軍史』, 第16號, 1, 1988.

이명환, 「공군의 창설과 발전」, 『軍史』, 第68號, 2008,

<http://doi.org/10.29212/mh.2008..68.251>

이강화, 『대한민국 공군의 이름으로: 6·25전쟁 출격 조종사이자 기록사진가 이강화 장군의 6·25전쟁 이야기』,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4.

이지원, 「6·25전쟁 전반기 미국의 항공기 원조와 한국의 전투 조종사 양성정책: 제1전투비행단 창설과정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35, 2020,

<http://doi.org/10.18013/jnar.2020.35.2.002>

_____, 「이승만 정부의 항공력 건설 노력(1948~1950)」, 『軍史』, 第121號, 2021,

<http://doi.org/10.29212/mh.2021..121.1>

(Abstract)

A Critical Review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National Constabulary's Aviation Unit

Lee, Ji-won

In December 1948, the aviation unit of Korean National Constabulary (KNC) was converted the ROK Army Air Command. And in October 1949,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was founded based on the Army Air Command. However, historical facts of the aviation unit of KNC have not settled yet. Since the most historical documents about the air unit were lost during the Korean War, the Army and the Air Force reconstructed the historical narrative of the unit based on a few remaining materials. As a result, three different historical narratives of the unit coexist now. These historical narratives can be found in the Yug-gun-jeon-sa (History of the Korean War of the ROK Army), published by the Army in 1952, the Gong-gun-bal-jeon-yag-sa (Brief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ROK Air force), published in 1954, and the Gong-gun-sa (History of the ROK Air Force), published in 1962. This study analyzes these three historical narratives to derives critical issues, and empirically verifies the establishment and growth of the aviation unit of KNC by comparing them with historical docume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viation unit first changed its name and then grew in a way that expanded its manpower and organization to a size that matched the new name. However, not a single aircraft could be introduced until the Air Force was established, and the development of tactical capabilities of the aviation unit was stalled. In this sense,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Air Force was founded by goals rather than capabilities, and based on vision rather than lessons. And the "(KNC) Air Base Command" has historical significance as a starting

point for such a process.

keywords : the Korean National Constabulary, air power, the ROK Air Force, aviation unit, establishment of a military branch, historical narrative.